

투석 방법에 따른 우울증 발생률¹⁾

1. 분석 배경

- 만성신장질환자는 신장 기능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어 평생 동안 혈액 투석 혹은 복막 투석을 받거나 신장이식을 받음
- 혈액 투석 환자는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고, 식이나 일상 생활 제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
 - ▶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혈액투석 환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20~70%로 다양하게 보고됨²⁾
- 본 고에서는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 환자의 우울증 발생 현황을 분석함

2. 분석 방법과 내용

- **대 상**: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을 처음 받은 환자
- **자료원**: 2008년~2016년 건강보험 청구자료
- **분석 방법**
 - ▶ 2008년~2009년에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을 받은 환자를 추적·관찰(평균 추적 개월: 62.7개월)하여 우울증(진단명: F32.x, F33.x) 발생 여부를 분석
 - ▶ 투석을 처음 시작한 이후 3개월 시점에 받은 투석 방법을 기준으로 투석 방법(혈액 혹은 복막 투석)을 결정
 - ▶ Kaplan-Meier 그래프로 두 투석 방법 간 우울증 발생률을 비교하고, log-rank 검정으로 발생률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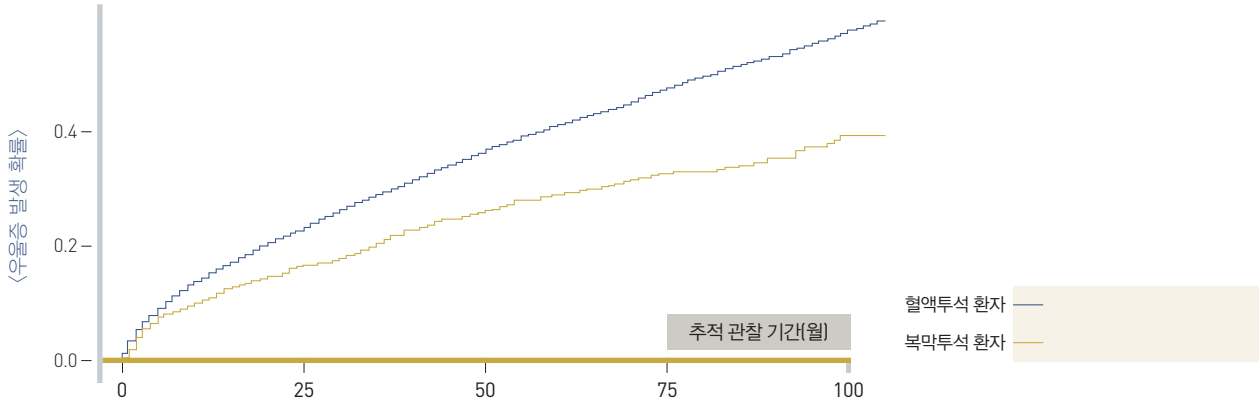
3. 분석 결과

- 2008년~2009년 투석을 처음 시작한 환자는 10,488명이며, 혈액 투석 9,232명(88.0%), 복막 투석 1,256명(12.0%)임
 - ▶ 혈액 투석 환자의 평균 연령은 54.4세로 복막 투석 환자(47.6세)의 평균 연령이 낮음
- 혈액 투석 환자는 복막 투석 환자에 비해 우울증 발생 확률이 유의하게 높음 (p-value < 0.0001)

1)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남대학교의 '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과제'의 분석 결과를 요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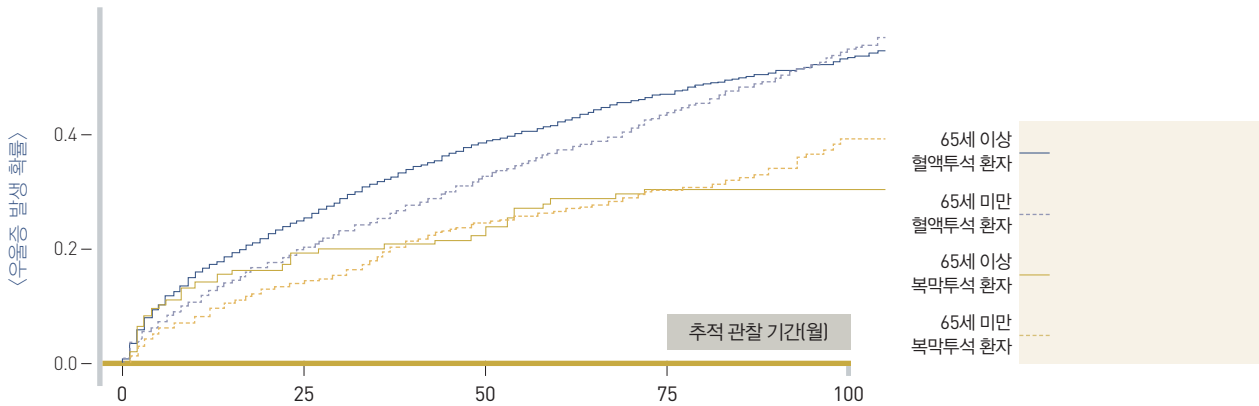
2) 조성호 등(2016). 혈액투석 환자에서 우울증과 연관된 임상적 요인 및 정신적 요인. 대한내과학회

[그림 1] 투석 방법에 따른 우울증 발생률



- 65세 이상 환자는 투석을 시작한 초기에 투석 방법과 상관없이 우울증 발생 확률이 높았고, 시간이 지날수록 65세 미만의 혈액 투석 환자의 우울증 발생 확률이 증가함

[그림 2] 투석 방법과 연령 그룹에 따른 우울증 발생률



4. 결론

- 투석 환자에서 흔히 동반되는 정신과적 문제는 우울증으로, 특히 65세 이상 환자는 투석 초기에 우울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
- 투석 치료 과정에 환자의 심리적 반응과 적응을 이해하고,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